

## 양어장의 못맛을 구내길

어느해 5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어느한 양어 사업소를 찾으시였다.

그곳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몇해전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오셨던 뜻깊은 일터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오시였던 잊을수 없는 그날을 감회깊이 더듬어 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던 장군님생각이 더 난다고, 인민들의 식탁우에 맛 좋고 영양가높은 물고기요리를 놓아 주시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 업적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시였던 사업소의 구내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시였다.

뜻깊은 그 구내길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 같으신 애국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이 갈마든다고, 철갑상어는 바다로, 조선은 세계로라고 하시며 한편의 시를 읊듯이 외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환하신 영상이 떠오른다고 열화같은 진정을 터놓으시였다.